

# Econ-Guide

## 한국 8월 고용: 질적 지표의 개선이 의미하는 바

2017. 09. 14

경제  
권아민  
02 369 3490  
ahminkwon@dongbuhappy.com

-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됐으나 향후 발표될 지표부터 회복가능성 염두
- 공공부문 일자리 급증하며 정책이 지표에 반영, 제조업 고용도 질적 개선 동반
- 질적 개선의 일환인 정규직화는 전일제 고용 회복을 암시, 소비에 시사점 크다

취업자 증가 폭은 둔화됐으나 역기저효과를 감안: 우리나라 8월 고용률은 61.1%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3.5%로 전년동월과 동일했다. 8월 취업자는 2,674만 명으로 전년대비 21.2만명 증가해 증가 폭 기준으로 13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증가율은 0.8%로 18개월만에 1%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6년 8월 취업자가 38.7만명으로 우뚝 솟았던 역기저를 감안해야 한다. 뒤이어 발표된 지난해 9월, 10월 데이터는 당해 평균인 20만명대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취업자는 회복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일용직 중심으로 건설업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된 점은 생각해보아야 할 요인이다. 정부는 그 이유로 기상여건 악화를 언급했으나 향후 부동산대책, SOC예산감소 등 정책기조를 고려하면 과연 일회성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어렵다.

1) 공공일자리 급증, 2) 제조업의 양적질적 개선에 주목: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공공 부문 취업자 증가가 특히 돋보인다.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행정 취업자는 7만 5천명으로 7.5%(YoY)증가해 주요 산업에서 가장 높았다. 연초이후 공공부문 월평균증가율이 2.9%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정부의 강력한 고용창출 의지가 본격적으로 지표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부문의 흐름도 양호하다. 전체 업종에서 24.5%(상용근로자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0.5%증가했다. 전월대비 증가율은 둔화되었으나 3개월 연속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난해와는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의 질을 가늠해볼 수 있는 시간별 취업자도 더욱 개선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전일제고용(주당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증가율은 전체 그것대비 빠르게 올라오는 양상이다. 6개월 평균으로 보더라도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질적지표 개선은 전일제 고용의 증가를 암시, 소비에 긍정적: 최근 부동산, 가계부채 등의 규제로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한다. 고용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률 등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은 분명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율에서 볼 수 있듯이 추세 자체가 바뀌는 모습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올해의 직접적 일자리 예산은 17.1조원에서 내년도 19.2조원으로 12.4%증가했다. 내년 총 지출증가율 7.1%를 훌쩍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장부가 추진하려는 고용의 질적인 개선, 그 대표격인 정규직화는 전일제 고용의 회복을 내포한다. 전일제 고용이 중요한 이유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전일제 고용은 장기적으로 소매판매, 특히 내구재와 유사한 궤적을 그려온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 조금 느리더라도 방향성은 분명해 보인다. 양적, 질적인 고용개선이 내수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며, 그 진척 정도 역시 고용개선속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도표 1.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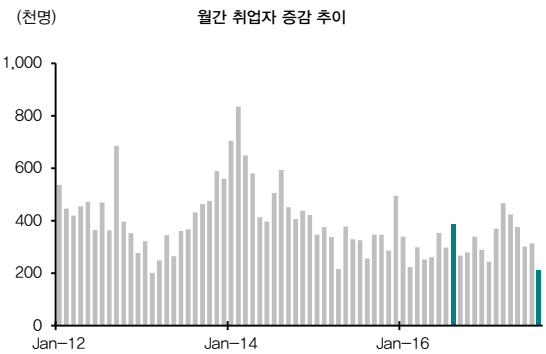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대비, 천명)

	계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행정
Aug-16	387	-73	141	98	31	71	59	103	36	17	64
Mar-17	467	-84	155	101	97	164	-66	39	15	8	40
Apr-17	424	-62	111	68	88	161	-30	33	5	-9	16
May-17	374	-25	85	52	80	162	1	33	-8	-20	25
Jun-17	301	16	-30	53	85	149	12	-38	-31	-24	25
Jul-17	313	49	-29	56	88	101	16	-18	-30	-38	25
Aug-17	212	24	-12	48	37	34	20	-40	-34	-19	76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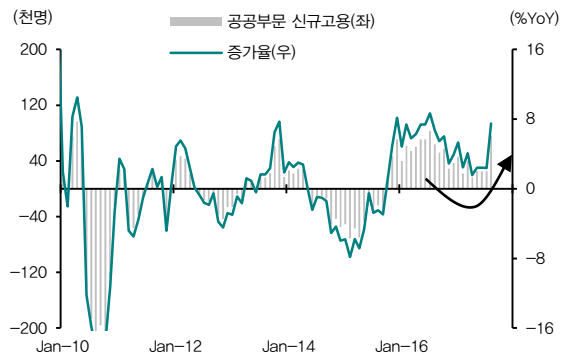
주: 순서는 업종별 고용비중으로 나열

도표 2. 양적 지표 둔화됐으나 역기저효과 감안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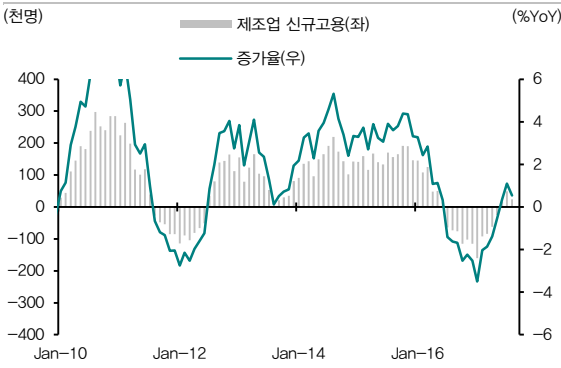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도표 3. 특히 돋보이는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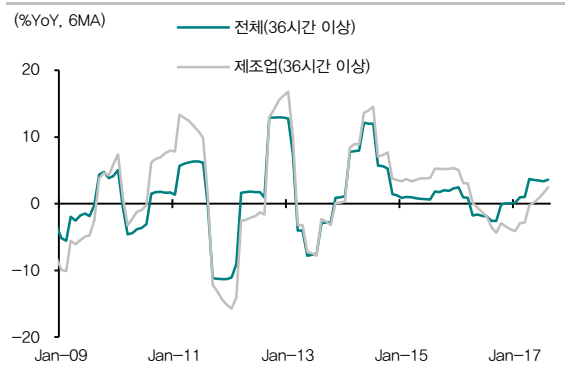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도표 4. 제조업 고용, 3개월 연속 플러스 다만 폭은 둔화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도표 5. 그러나 질적 지표의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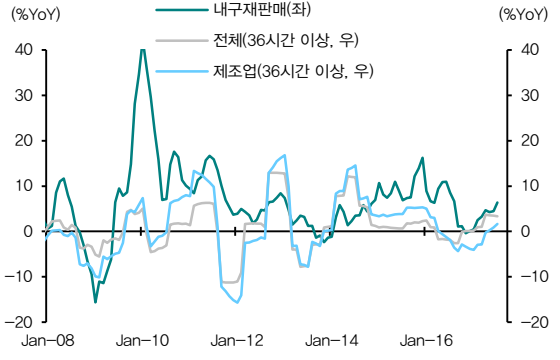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도표 6.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는 전일제 고용은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주: 전일제 고용데이터는 6개월 평균

도표 7. 지출규모가 큰 내구재판매와 더욱 밀접한 궤적



자료: 통계청, 동부 리서치 주: 전일제 고용데이터는 6개월 평균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I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에게 지난 6개월간 E-mail을 통해 사전 제공된 바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